분석

축산물등급제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고 경 철 기획과장
(축산물등급판정소)

1. 서 론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이 농림수산부 고시 제94-63호로서 공표('94. 11. 30자 관보게재)됨에 따라서 다음 해당지역의 행정구역내에서는 등급판정받은 소, 돼지의 도체만 거래할 수 있게 되어있다.

〈표 1〉 축산물등급화 거래 고시지역

고 시 지 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실 시 시 기
서울, 제주	소·돼지의 도체	'95. 2. 6
부산	돼지의 도체	'95. 2. 6
	소의 도체	'95. 6.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돼지의 도체	'95. 6. 1
	소의 도체	'95. 10. 1

축산물(도체)등급사업은 1989년 4월부터 사업준비가 시작되었고 1992년 7월 1일 축협중앙회 서울공판장(가락동 소재)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개 민간 도매시장(우성, 협진)에 확대되었고 1993년 7월 1일에는 서울로 반출하는 30여개 지방도축장에서 그리고 1994년 7월 1일에는 부산 2개 도매시장 및 부산으로 반출하는 도축장 그리고 축협 제주공판장에서 도축되는 소, 돼지의 도체를 등급판정하기 시작하여 1995년 1월말 현재 전국 42개 도축장(5개 도매시장 및 4개 공판장 포함)에서 등급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년 2월 6일부터 서울, 부산, 제주지역에서 실시되는 축산물등급화 거래(축산물등급제)에 앞서서 사전 계도 내지는 계몽기간이었던 시범사업 실시기간 중('92. 7. 1~'94. 12. 31)에 수행되었던 돼지도체 등급판정 업무 추진현황과 등급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2. 등급판정 추진실적

시범실시 초년도인 '92년도 하반기 등급판정두수는 481,336두로서 A등급 4.7%, B등급 38.8%, C등급 42.0%, D등급 14.5%이었으며, 제2차년도인 '93년도에는 1,807,087두를 등급판정하여 전년대비 375%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94년도에는 2,774,633두를 등급판정하여 전년대비 154%의 신

〈표 2〉 축산물등급제 시범사업 추진실적

기 간	판정두수 (두)	등급별 출현율(%)				
		A	B	C	D	E
'92. 7. 1~12. 31	481,336	4.7	38.8	42.0	14.5	–
'93. 1. 1~12. 31	1,807,087	5.6	30.8	39.9	18.6	5.2
'94. 1. 1~12. 31	2,774,633	5.2	28.4	40.8	19.6	6.0

장률을 보였다(〈표 2〉 참조).

'94년도 A등급 출현율은 5.2%이었고, B등급은 28.4%, C등급은 40.8%, D등급은 19.6%, E등급(등외급)은 6.0%가 출현했는데 전년도('92. '93년도)와 비교해 볼때 각 등급별 출현율이 대동소이하였다.(참고 : 소의 경우 육량등급(A, B, C)별, 육질등급(1, 2, 3)별 출현율 비교시 매년 상위등급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체등급제가 고급육 생산에 자극제 내지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돼지의 경우 도체등급제가 이미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돼지개량에 등급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유도하기전에 좀 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94년도 등급판정된 돼지도체 2,774,633두중 2,439,627두가 서울 및 부산에서 도축되거나 관내 반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비는 암퇘지 53.6%, 수퇘지 43.9%, 거세돈 2.5%이었다. 성별구별없이 전체에서는 A등급이 5.2%, B등급 28.5%, C등급 40.0%, D등급이 19.7% 그리고 E등급이 6.7% 출현하였다. 성별 및 등급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암퇘지 중에서는 A등급이 9.5%, B등급이 46.5%, C등급이 25.7%, D등급이 8.1%, E등급은 10.2% 출현했으며 수퇘지에서는 B등급이 6.1%, C등급이 56.9%, D등급이 34.4%, 그리고 E등급이 2.6% 출현했는데, 거세돈에서는 A등급이 2.6%, B등급 35.1%, C등급이 49.3%, D등급이 12.6%, 그리고 E등급이 0.4% 출현하였다(〈표 3〉 참조).

1994년도에 등급판정된 돼지도체 2,774,533두

〈표 3〉 전국 돼지도체 성별, 등급별 출현두수 및 비율

(단위 : 두, %)

구분	계	A	B	C	D	E
암	1,306,947 (100)	124,187 (9.5)	608,071 (46.5)	335,495 (25.7)	105,210 (8.1)	133,984 (10.2)
수	1,071,243 (100)	–	65,099 (6.1)	608,915 (56.9)	368,547 (34.4)	28,082 (2.6)
거세	61,437 (100)	1,622 (2.6)	21,541 (35.1)	30,305 (49.3)	7,731 (12.6)	238 (0.4)
계	2,439,627 (100)	125,809 (5.1)	695,311 (28.5)	974,715 (40.0)	481,488 (19.7)	162,304 (6.7)

( )는 출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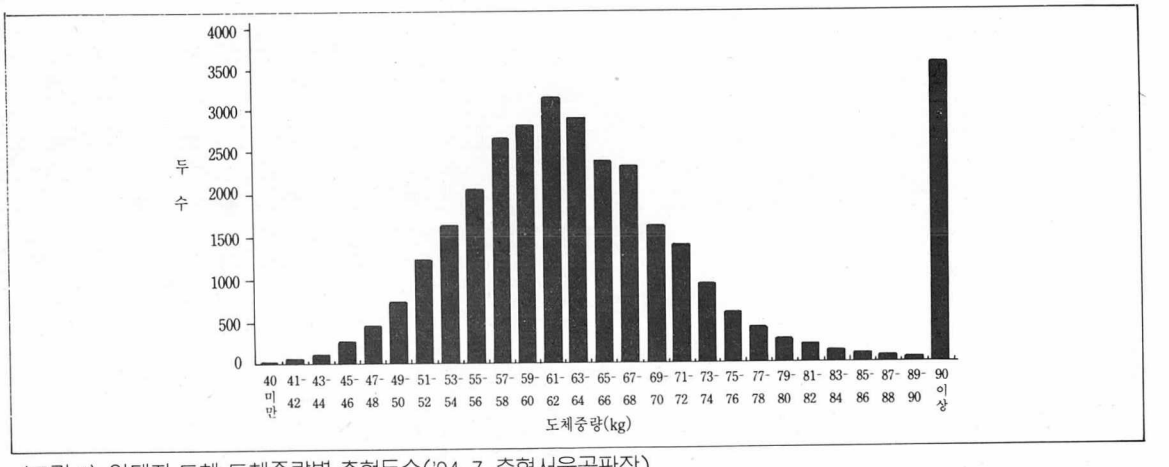
〈표 4〉 지역별 등급판정 실적

(단위 :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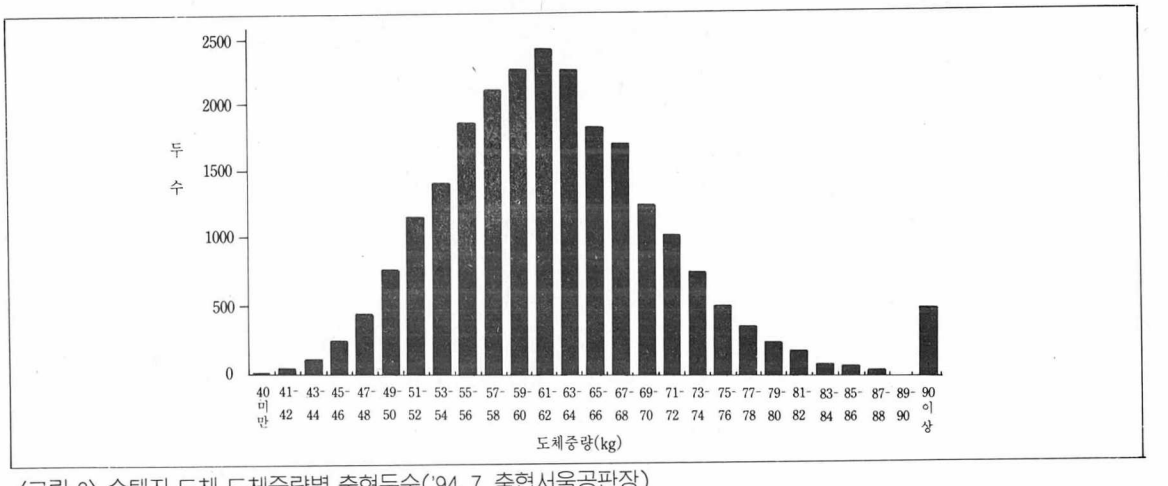
구분		도 축	판 정	판정률(%)
도매시장 도축	서 울	1,679,632	1,547,282	92
	부 산	319,903	326,006	98
	제 주	87,395	78,574	90
	소 계	2,086,930	1,945,087	93
서울 및 부산 반입	경 기	571,961	147,790	26
	강 원	118,478	58,604	49
	충 북	92,205	92,205	100
	충 남	113,750	113,144	99
	전 북	1,778	1,108	62
	전 남	10,606	9,220	87
	경 북	–	–	–
	경 남	88,077	72,469	82
	소 계	996,854	494,540	50
기 타			335,006	

중 1,945,087두가 서울, 부산 및 제주도의 6개 도매시장에서 등급판정되었는데 이는 6개 도매시장 도축두수의 93.2%에 해당되며 서울 및 부산으로 반출하는 도축장에서 494,540두가 등급 판정되었는데 서울 및 부산지역으로 반출된 두수의 49.6%에 해당된다(〈표 4〉 참조). 도매시장의 경우 도축물량의 90% 이상이 등급판정을 받았고 경기, 강원, 전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서울, 부산으로 반출하는 물량의 80% 이상이 등급판정을 받았다. 서울 및 부산이외의 지역으로 반출되는 돼지 335,006두가 추가적으로 지방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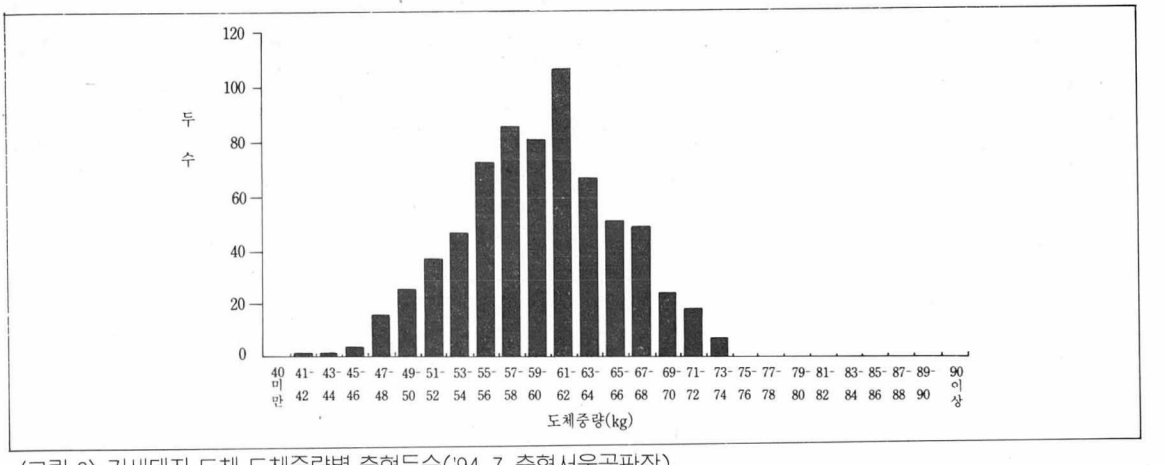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부



〈그림 1〉 암퇘지 도체 도체중량별 출현두수('94. 7. 축협서울공판장)



〈그림 2〉 수퇘지 도체 도체중량별 출현두수('94. 7. 축협서울공판장)



〈그림 3〉 거세돼지 도체 도체중량별 출현두수('94. 7. 축협서울공판장)

산, 제주지역에서 금일('95. 2. 17) 현재 등급판정 시행도축장(도매시장 및 반출도축장)에서 등급판정 업무가 100%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 도매시장 거세돈의 경락가격 고찰

차제에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거세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축협 서울공판장에서의 돼지도체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94년 7월)을 살펴보면 암퇘지는 A등급이 2,887원, B등급이 2,683원, C등급 2,429원 등으로 경락되었고 수퇘지는 B등급이 2,570원, C등급 2,424원 등으로 경락되어 B등급 수퇘지의 경우, C등급 암퇘지와 유사하게 그리고 C등급 수퇘지는 암퇘지 C등급과 D등급 중간가격으로 경매되었고 D등급과 E등급의 경우 암·수퇘지가 거의 같은 가격으로 경매되었다.

수퇘지의 육질면에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웅취 및 육색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퇘지를 거세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의 거세돈 경락가격은 암퇘지의 경락가격과 유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암퇘지와 수퇘지의 중간가격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세돈의 경락가격은 동일등급의 수퇘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표 5〉 참조). 그 결과 "거세하면 육생산성도 떨어지는데 도매시장 경락가격 또한 낮게 형성된다면 거세하면 손해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표 5〉 축협서울공판장 돼지도체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 ('94년 7월)

(단위 : 원/kg)

구분	평 균	A	B	C	D	E
평균	2,475 (100.0)	2,817 (113.8)	2,679 (108.2)	2,481 (100.2)	2,349 (94.9)	1,628 (65.8)
암	2,467 (99.7)	2,819 (113.9)	2,693 (108.8)	2,540 (102.6)	2,397 (96.8)	1,563 (63.2)
수	2,321 (93.8)	-	2,538 (102.5)	2,445 (98.8)	2,332 (94.2)	1,902 (76.8)
거세	2,314 (93.5)	2,477 (100.1)	2,418 (97.7)	2,344 (94.7)	2,172 (87.8)	1,841 (74.4)

'94년도 7월 축협 서울공판장에서의 돼지도체의 체중대 및 성별 출현두수 및 경락가격을 살펴보면, 암퇘지의 경우 60~82kg(중간값 71kg)대에서 경락가격이 2,800원 이상이었으며 55~88kg(중간값 71kg)대에서는 2,500원 이상으로 경매되었고(〈그림 1〉 참조) 수퇘지는 60~84kg(중간값 72kg)대에서의 가격은 2,500원이상, 52~90kg(중간값 71kg)은 2,200원 이상으로 경매되었다(〈그림 2〉 참조). 따라서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도체중 71kg 전후(60~82kg)의 돼지(암, 수 공히)를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세돈의 경우 도체중 70kg 이상은 4% 미만이었다. 그 결과 거세돈의 경우 56~74kg(중간값 65kg)에서 가격이 2,500원 이상이었고 48~74kg(중간값 65kg)에서 가격이 2,500원 이상이었고 48~74kg(중간값 61kg)에서 2,200원 이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으로 돈육을 수출하는 육가공공장(음성 소재)에서의 체중대별 출현현황을 보면 65~80kg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세돈 비육농장은 대부분의 경우 수출돈육 가공공장과 계약출하(납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 출하 거세돈은 체중미달 등 어떤 이유로 해서 납품이 거부된 불량 거세돈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 거세돈은 대부분이 내수용으로 도매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다시말해 중매인들이 선호하는 체중대에 미달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체중대를 높여서 도매시장에 출하한다면 충분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